

“한국 성장? 별거 아니다” 크루그먼 도발, 토론서 맞섰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The JoongAng Plus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17

1993년 초에 세계경제연구원(IGE)을 창설한 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국제회의에 특별강연, 기조연설 혹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요국 정상이나 정상급 인사들과 함께 참여한 행사도 많았다.

우선 IGE 창설 직후인 1993년 4월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은행 주관 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그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리관유 싱가포르 선임장관(당시 직함),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레이몬드 바 전 프랑스 총리 등이 참석했다.

곧이어 시티코어(시티뱅크 그룹) 존 리드 회장이 같은 싱가포르에서 11월에 열린 ‘아시아 퍼시픽 리더십 회의’에 초청했다. 리관유 선임장관과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기조연설자로 참여한다고 했다. 불과 10여 일 간격으로 개최되는 두 싱가포르 회의에 모두 참석한 셈이다.

베이커 장관과는 헤드 테이블의 옆자리에 앉게 되어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베이커 장관은 한국



1 1995년 5월 방한한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담소를 나누는 사공일 IGE 이사장. 2 1996년 2월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오른쪽)이 리관유 선임장관(왼쪽)과 환담하고 있다. 3 폴 크루그먼 교수의 2022년 6월 스페인 연설 모습. [사진 사공일, 중앙포토, EPA=연합뉴스]

크루그먼과 ‘아시아 기적’ 논쟁

“소련·동유럽처럼 국가 주도” 평가에
“치열한 경쟁 결과” 통계오류도 지적
“단순 투자론 한계” 경고는 새겨야

을 방문해 연설해 주기로 약속했다. 실제로 1995년 5월 베이징으로 가는 길에 서울에 들러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를 주제로 연설했다. 2008년 5월에는 다른 회의로 서울을 방문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당면하게 될 글로벌 도전’이란 IGE 특별 강연도 했다.

리관유 선임장관을 처음 만난 것은 경제수석 재임 시인 1986년 6월 싱가포르 수상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였다. 리 수상은 특히 한국 정부가 어떻게 유능한 인재들을 공식으로 유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컸다. 정상회의 전에 잠시 기회가 있어 경제국정 전반에 관해 설명했다. 귀국 후 당시 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를 통해 “사공일 수석의 설명이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1993년 싱가포르 회의를 앞두고 리관유 선임장관에게 개별 면담을 요청했다. 11월 16일 오전회의 종료 후 만나자고 즉각 회신이 왔다. 선임장관 집무실에서 만나 한 시간 차담회를 가졌다. 그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승자가 된 것은 세계,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엔 큰 다행이었음을 강조했다. 자국 이익을 앞세우기 전에 ‘원칙’을 지키는 당시 미국의 ‘순진함’은 세계 특히 이 지역의 번영과 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했음을 지적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의지’와 ‘능력’이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

세력 균형을 위해 미군의 주둔은 바람직하며, 심지어 중국도 앞으로 상당 기간 그것을 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화두는 중국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일부 서양 학자들은 중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통일된 중국의 분할 가능성을 점쳤다. 리관유 선임장관은 한마디로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과거에는 마상(馬上)에서 통제했지만,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한 현시점에서의 중앙통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1996년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즈음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 회의에도 당시 리관유 선임장관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했다. 이 두 사람을 포함해 회의 참석자 7~8명이 함께 당시 장쩌민(江泽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 기회를 가졌다. 이때가 바로 중국·대만 간 소위 양안 문제로 군사적 충돌까지 벌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시기였다. 리관유 전 총리는 “중국은 매년 대만의 국내총생산(GDP)만큼 더 성장하고 있다”며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중국의 자제를 주문하는 충언을 했다.

이후에도 장쩌민 주석과 관련된 회의에 두 번 참석했다. 2001년 9월 10~12일에 열린 ‘21세기 중국과 세계’ 국제포럼에는 헬무트 콜 전 서독 총리, 가이후 도 시키 전 일본 총리, 밥 호크 전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사무총장,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미국 안보 보좌관, 한승주 전 외무장관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 인사 다수가 참여했다.

회의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에 콜 전 총리, 호크 전 총리, 브레진스키 박사, 한승주 장관 등 일부 참석자들과 함께

장 주석 면담 기회를 가졌다. 뉴욕에서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9·11 테러가 일어난 바로 그날이었다.

이날 면담에서 장 주석은 주로 경청만 하던 1996년 면담 시의 모습과는 달리 많은 얘기를 했다. 상하이 시장 재직 시 주식시장을 개설할 때의 일화에서부터, 중국 공산당 주석 선출하는 과정의 민주성과, 중국식 민주주의에 관한 화두를 이어 갔다. 중간에 통역이 잘못됐다면서 본인이 직접 영어로 고쳐주기도 했다.

또 다른 기회는 2002년 중국판 다보스포럼으로 출범한 보아오 포럼 제1차 회의에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했을 때였다. 이 회의에는 20여 개국의 정상급 인사들과 각료급 인사 다수가 참여했다. 마지막 날 정상 만찬 자리에서 장 주석이 마이크를 잡고 영어로 ‘홈 스위트 홈’을 부르면서 모두 자유롭게 합창하도록 유도하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그 이후 2008년도부터 시작된 G20 정상회의 과정에서 후진타오 주석을 여러 차례 지근거리에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중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 변화하는 중국 지도자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 덩샤오핑의 도광양희(韬光養晦)에서 후진타오의 화평굴기(和平崛起)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점점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한 중국 리더십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05년까지 중국은 세계 전체 GDP의 5%에도 이르지 못했다. 당시 미국의 비중은 거의 30%에 달했다. 그러나 2001년 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중국 경제는 급속히 성장해 2010~2011년에 와서는 세계 GDP의 10% 수준에 이르게 됐다. 게다가 2007년 미국에서 시작해 2008년 유럽까지 번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세계경

제를 구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 경제의 위상은 더욱 커졌다. 급기야 시진핑 주석은 2012년 패권국을 향한 중국몽(中國夢)을 세계만방에 선언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린 많은 국제회의에서는 나는 주로 한국 경제의 발전과 한국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교훈에 관한 주제 발표를 했다. 1995년 5월에는 재팬 소사이어티와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뉴욕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고 2000년부터 24년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각광을 받은 천재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교수였다.

세계은행이 1993년에 『동아시아 기적』이란 책자를 발간할 정도로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이적 경제 발전에 대한 당시 세계의 감탄과 찬사는 대단했다. 그런데 크루그먼 교수가 “그것 별것 아닌데 뭐 그렇게 야단이나”는 식의 논문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신화(The Myth of Asia's Miracle)’를 1994년 말에 발표한 것이다. 요지는 간단했다. 이들 나라는 과거 소련이나 동유럽 공산 국가들처럼 국가가 나서 생산성 향상 없이 투자만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였다. 따라서 혁신 없는 외연적 성장은 곧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는 크게 세 가지 코멘트를 했다. 첫

리관유·장쩌민 등 주요 인사와 인연 세계경제연 창설 뒤 각국에서 초청 리관유 방한때 한국 경제국정 설명 장쩌민 만찬서 ‘홈 스위트 홈’ 합창도

째,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대로 이 나라들이 투자만을 늘려 높은 성장을 이룩했다 하더라도 경이적 업적은 ‘기적’이다. 다른 많은 개도국은 그마저도 못하고 있지 않나, 특히 한국은 과거 미국 원조 당국마저 경제 개발에 관한 한 ‘희망 없는(basket case)’ 나라로 치부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을 따라잡는 단계에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후발 개도국의 이점을 잘 활용한 것이다.

둘째, 단순히 투자율이 높다는 공통점 때문에 이들 나라를 과거 소련이나 동유럽 공산국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큰 오류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소련과 달리 대외지향적 수출 주도 성장 전략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했다는 큰 차이가 있다. 이어서 크루그먼 교수 주장의 근거가 된 다른 사람 논문의 통계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 없이 단순한 투자 증대만으로는 이들 나라의 경제 성장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크루그먼 교수의 경고는 새겨들어야 함도 강조했다. 성장잠재력이 크게 실추된 현재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충고다.

귀국 후에 당시 회의를 주최한 재팬 소사이어티의 회장인 윌리엄 글라이스틴 전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도발적인(provocative) 크루그먼 교수를 상대로 아주 효과적인 토론을 해줘 고맙다”는 내용의 서신을 받았다. 김창우 기자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The JoongAng Plus에서 연재 중인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시리즈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